

예수말씀 복음서 Q: 서론, 본문 번역, 해설

소기천*

제 1 부

서론

예수말씀은 귀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에서 주로 복음서에 전해지고 있다. 공관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에 관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Q)를 연구하면서, Q 자료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의 육성을 토대로 예수말씀을 수집하고 전승시킨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말씀 복음서 Q’ (the Sayings Gospel Q)라고 부른다. 우리는 예수말씀 복음서 Q에서 예수의 육성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히 1:1-2)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데, 예수말씀 복음서 Q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자가 최초의 복음서 수집 전승물을 토대로 우리에게 예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귀중한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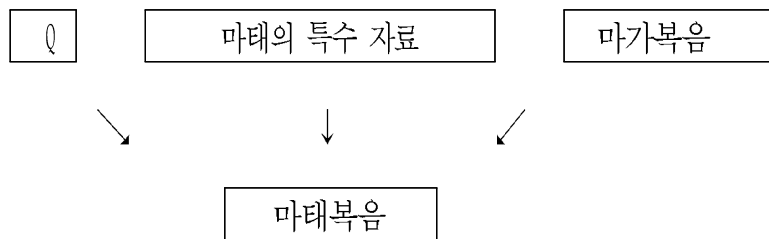
그렇지만 예수말씀 복음서 Q는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 이 외의 또 하나의 복음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말씀 복음서 Q를 복음서의 문학적 양식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장르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말씀 복음서 Q는 예수의 비유나 기적, 수난설화, 탄생설화, 선포, 설교 혹은 전기 등의 복음서 문학 양식들 가

* 송면교회 담임목사/장신대 강사, 신약학.

운데 하나인 예수의 말씀들만을 모아 놓은 최초의 복음서 자료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Q를 ‘예수말씀 복음서’라고 구분 짓는 이유는, 말씀 복음서 양식에 속하는 복음서들이 Q 이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마 복음서」, 「야고보의 비밀 복음서」, 「구세주의 대화」, 그리고 「마리아 복음서」 등이 말씀과 대화를 기초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말씀 복음서들은 유대적 지혜 말씀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문학적 특성을 살려서 소위 지혜자들의 말씀들(*Logoi Soph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Q가 수많은 유대적 지혜 말씀들의 전통에서 있기는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로서 예수의 말씀들과 교훈들에 대한 최초의 수집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지혜 말씀들과 구분하여 예수말씀 복음서 Q라고 부른다. 우리가 Q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복음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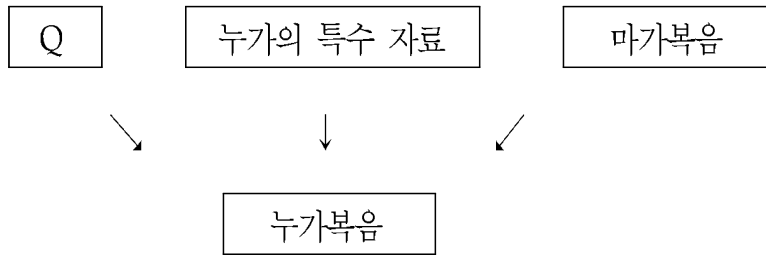
Q란 표식은 독일어 *Quelle*의 첫 글자로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된 자료라는 문자적 의미에서 출발하였다. 신약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Q라는 공통 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종종 단순화한다.

도식 (1): 마태복음의 경우



위의 도식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마태는 Q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의 특수 자료를 사용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

도식 (2): 누가복음의 경우



위의 도식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누가는 Q와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의 특수 자료를 사용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

예수말씀 복음서 Q는 지난 150년 동안 신약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제 Q 프로젝트(International Q Project = IQP)가 1994년 시카고에서 모였던 세계 성서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SBL)의 연례회의를 끝으로 학문적으로 복원을 완료하였던 문서이다. Q의 복원은 1970년대부터 미국 서부의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의 로빈슨(James M. Robinson)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오다가, 그들이 1989년 11월 17일에 SBL의 연례회의에서 정식으로 IQP를 출범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Q를 복원하는 일에 착수한다. 그러다가 1993년 6월 21일-25일에 독일의 밤베르그(Bamberg)에서 그 동안 독자적으로 Q를 복원해 왔던 유럽의 학자들이 IQP에 합류함으로써, IQP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연구학회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클레어먼트, 캐나다의 토론토, 독일의 밤베르그를 오가면서 IQP를 통한 Q의 복원 작업은 계속되어 왔다. Q의 복원 역사에 관해 자세한 것은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9 (1990): 499-501; 110 (1991): 494-498과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3 (1994): 495-499를 참고하라. 이것과 더불어서 그리스어로 복원된 Q 본문의 자료를 위해서,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1 (1992): 500-508; 112 (1993): 500-506; 113 (1994): 495-499; 114 (1995): 475-485; 116 (1997): 521-525를 보라. 1996년에 미국 뉴올리안즈에서 IQP의 공식적인 연례회의는 종결되었지만, 매년 세계 성서학회(SBL)의 연례회의와 국제 성서학회(International SBL)에서 Q Section으로 모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일은 계속되어 현재에도 나가고 있다.

IQP의 연구 결과들은 1996년부터 유럽의 Peeters 출판사에서 *Documenta Q: Reconstruction of Q through Two Centuries of Gospel Research Excerpted, Sorted and Evaluated*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앞으로 32권의 전체 시리즈로 완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2000년에 Q의 대조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The Critical Edition of Q: A*

*Synopsis Including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Mark and Thomas with English, German and French Translation of Q and Thomas*가 역시 유럽의 Peeters 출판사와 미국 의 Fortress 출판사에 의해서 발간된다. 그리고 복원된 Q 본문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NRSV에 부록으로 실릴 예정에 있으며, Q 본문에 대한 단행본 주석서도 로빈슨 (James M. Robinson)에 의해서 Fortress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는 Hermeneia 성서 주석 시리즈에 발간될 예정이다.

오늘날의 Q 연구 경향은 단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라는 복음서 자료 설의 차원을 넘어서, Q가 예수의 갈릴리에서 전개된 공생애 동안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을 중시하여, 복원된 Q 본문의 연구를 통하여 소위 잃어버린 갈릴리 공동체, 즉 Q 공동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Q 공동체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예수의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오늘날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많은 학자들이 Q 공동체의 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Q의 기록 년도를 현존하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마가복음이 70년 경에 기록되었고, 마태 복음과 누가복음이 80-85년 경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이 90-100년 경에 기록되었는데, Q는 50-70년 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Q의 가치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50년 경에 바울이 그의 서신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지만, 그의 목회와 선교적인 관심은 이방인 선교 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Q는 유대인 선교 지역,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Q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였던 최초의 갈릴리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지만, 갈릴리의 Q 공동체는 예수의 공생애 동안에 이미 시작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Q 공동체는 사도행전 이전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 주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방인 선교는 예수에게서 비롯되었는가? Q 전승과 공관복음서의 다른 전승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Q의 신학은 무엇인가? 사도들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케리그마는 역사적 예수와 관련이 되는가? 마가는 Q를 알았는가? Q와 마가 이전의 전승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Q 공동체와 팔레스틴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관계는 무엇인가? Q 공동체는 당시에 활동하였던 현인들 (Cynics)과 어떻게 무관한가? Q 공동체의 사람들은 방황하는 전도자들(wandering charismatics)이었던가? 바울은 Q를 알았는가? 바울이 체계화한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의 의도대로 세워졌는가? Q와 야고보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등등

이다.

Q 공동체는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갈릴리 공동체로서, 역사적으로 유대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마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마태 3-11장이 Q의 순서에 입각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같은 점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마태 3-11장에서 마태복음은 전승 궤도를 Q로부터 출발하여 마가복음으로까지 연결짓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태 3-11장이 마가복음에 의해서 그 구조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Q에 의해서 그 기본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마태 12-28장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결합에 있어서 Q가 종속적인 요소가 되는 것처럼, 마태 3-11장에서 마태복음이 Q에 의존해서 기록될 때 마가복음은 단지 종속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Q 공동체가 일차적으로 마태 공동체 속에 병합되었다고 간주한다. 이 같은 사실은 Q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의 신학적 입장의 일치점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자는 유대적 기독교에 근거하여 유대 율법에 대해서 지극히 보수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고, 예수의 공생애 동안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방인 선교보다는 유대인 선교에 더 치중하다가, 후에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적인 원리로 발견함에 따라서 이방인 선교를 실천하게 되었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사실을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때의 경고와 심판의 표상으로 이해하였으며, 지혜 기독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말씀을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였다. 지리적으로 양자는 갈릴리 북쪽인 시리아의 서부 지역을 지역적인 배경으로 두고 있었다. 특히 서부 시리아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안디옥 인근까지 그 지역적인 배경을 넓힐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이 신학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Q 공동체가 북부 갈릴리와 서부 시리아에 지역적인 배경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쉽게 Q를 접할 수 있었다. 후에 시리아 지역과 안디옥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디다케(the Didache)」와 「열두 사도의 가르침(the 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양자 사이의 공통된 서부 시리아 지역과 안디옥의 배경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팔레스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남으로는 예루살렘, 동으로는 요단 강 건너편과 다메섹, 북으로는 소아시아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일종의 중간 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지역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등과 같은 강대국의 지역 패권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때 그 때마다 전쟁터가 되었지만, 갈릴리는 이들 지역 패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 때문에, 어느 강대국의 볼모가 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강대국의 중간 지점으로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갈릴리에는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 살게 되었고, 무역이 활발하게 거래되었던 곳으로

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도시인 세포리스와 디베리아는 당시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알렉산더 대제 이후의 헬라화 정책은 갈릴리에 중대한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갈릴리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시드 왕조의 헬라화 정책에 의해서 여러 신흥 도시들이 건설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마카비 일가에서 유대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차원에서 저항 운동을 일으켜 주전 140에서 주전 63년까지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기도 하였지만, 대세는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다 주었고,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마카비 후예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에 나서게 됨으로써, 팔레스틴은 로마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이 때에 그리스어는 지중해 세계의 공통 언어로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예수말씀 복음서 Q는 처음부터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일상 생활에서 아람어를 사용한 흔적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그리스어 문화권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Q의 편집은 그리스어로 이루어 졌다. 알렉산더 대제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이후에, 그리스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바울을 비롯한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구약성서를 인용할 경우에, 그리스어 번역성경(LXX)의 기억에 의존해 있었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최근에 Q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Q의 갈릴리 배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Q는 도시가 아닌 농촌을 근거로 활동하였던 공동체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농기구들(Q 3:9, 17; 17:2, 35)과 농촌 생활들(Q 3:8-9, 17; 6:41-42, 43-45, 48-49; 10:2, 13; 11:34; 12:24, 27-28; 13:19, 21; 14:5, 35; 15:4; 17:2, 6, 35; 19:20-21)이 심심하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영세한 목수 생활을 반영하는 눈 속의 티(Q 6:41-42), 시골 장터의 모습(Q 7:32),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Q 11:11-12)이 등장한다. 갈릴리가 농촌이었지만 예수 당시에 추수 물량은 해마다 소출의 등락이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낙후된 농촌 지역의 특성에 기인되지만, 일차적으로는 기후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연유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농촌 지역이었지만, 갈릴리 지역에는 지리적으로 헬라식 행정 조직의 하부 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 도시들 가운데는 가버나움을 포함하여 디베라, 세포리스, 가바라(혹은 가라바), 벳세다, 타리차개, 소돔, 고모라, 고라신, 두로, 시돈 등의 도시들이 상업과 정치의 중심 도시로서 활발한 활동의 무대였다. 가버나움은 Q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장소로서 예수 당시에는 고작 1,700명 정도 혹은 그 이하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Q 공동체의 배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들 도시들은 비교적 하급 행정직의 관료들이 활동하였던 곳이었다. 이들 관료들은 상부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빈번하게 그 자리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

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무쌍한 정치 현실 속에서, Q는 헬라화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전히 유대 율법에 대한 보수적인 경향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Q가 유대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으로 율법 해석에 있어서 보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Q 공동체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Q 공동체가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척되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지만, Q 공동체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보수적 열정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빼앗지를 못하였다. Q 공동체는 바리새적인 율법 해석을 비판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차단하였고 내부적으로는 Q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 나갔다.

이런 점에서, 예수말씀 복음서 Q는 외부의 박해와 순교를 이겨내었던 최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문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Q 공동체는 구약성서의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하여, 과거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왕하 17:11-12; 대하 30:7-8; 느 9:26-30)을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비교하고 예언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왕하 17:13; 느 9:26)을 예수와 요한의 설교에,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이스라엘(왕하 17:14-17, 19; 느 9:26, 29-30)을 이 세대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왕하 17:18, 20; 느 9:30)을 마지막 때의 재림주와 심판주의 표상으로 각각 비교하면서, 당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궁극적인 회개를 촉구함과 아울러 Q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예수말씀 복음서 Q는 단층 분석법에 의해서 세 가지 편집층으로 세분되고 있다. 초기 편집 단계(Q¹)는 지혜 전통에 근거하여 예수의 지혜 말씀들을 수집하였는데, 일차적으로 Q 편집자는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지혜 말씀들을 통하여 Q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Q의 지혜 전승은 50년 경에 편집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이미 예수의 비유집, 묵시문학적 어록, 수난과 부활설화 등이 수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Q 공동체는 잊혀져가는 예수의 지혜 말씀들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의 수난과 부활을 체험하고 직접 목격한 장본인들로서 Q 공동체는 예수의 말씀들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기 편집 단계에서 Q 공동체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공동체 규율들이 예수의 지혜 가르침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Q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유대 율법적인 전통에서 있는 유대인들을 Q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대인 선교에 박차를 가한다. 이차적인

편집 단계(Q²)에는 예언과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수집되어 있다. 여기서 예언과 심판이 주요한 메시지로 부각되고 있는데, 임박한 재림과 심판에 대한 기대가 재림 지연이라는 뜻밖의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을 때, Q 공동체의 종말론적 기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유대인 선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된 이후에, 예수가 이방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Q 편집자는 이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방인들이 칭찬을 받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회개로 유도하고자 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Q 공동체가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하여 박해의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더욱 더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 마지막 편집 단계(Q³)는 예수의 시험사회를 토대로 Q 공동체의 창시자인 예수에 대한 전기적 캐스트(cast)를 기초로 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율법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Q 공동체가 이 단계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이미 Q 공동체가 유대 기독교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구축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Q 공동체가 유대적 연속성과 그 특징을 견지함에 따라서, 마태 공동체로 병합되는 모든 사전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루돌프 블트만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의 철저한 단절을 선언한 이후에, 한동안 신약학의 분야에서는 역사적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블트만에 대한 비판은 그의 제자들(post-Bultmannian)에 의해서 시도되어, 역사적 예수 탐구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 Q가 복원되기까지, 신앙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10년 전에 세계에 소개되기 시작한 그리스어 Q 본문이, 이렇게 한국어로 출판될 때까지 필자는 여러 번 망설였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어나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고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결코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려는 의도는 없다. 오히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예수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제 2부 예수말씀 복음서 Q: 본문 번역과 해설¹⁾

1) Q 본문은 국제 Q 프로젝트(International Q Project = IQP)가 복원한 것을 필자가 로빈슨(James M. Robinson) 교수의 허락(1998년 10월 15일자 편지)을 받아서 그리스어로부터 직접 번역한 것이며, 해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을 함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Q 본문의 우리말 번역은

번역에 따른 표지

- < > Q 본문의 복원에 있어서 수정을 뜻한다.
- [] {A}나 {B}의 판정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 {C}의 판정을 받은 것을 뜻한다.
- [[[]]] IQP가 복원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지인데, {C}의 판정을 받은 것이다.
- << >> {D}보다 더 높은 것으로서 Q 본문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어로 복원은 못한다.
- [[<< >>]] IQP가 그리스어로 복원하지는 못했지만, Q 본문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문을 {C}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 ? ? 복원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이것은 {D}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 [< >] {A}나 {B}의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Q를 복원하면서, IQP가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 [[< >]] {C}의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Q를 복원하면서, IQP가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 … 혹은 … Q 본문에 {A}나 {B}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복원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점 두 개는 그 가능성이 {D}의 판정 또는 {U}, 즉 결정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점 세 개는 간이식(unformatted) Q 본문이나 Q의 번역문에서만 사용한다.
- ↔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Q 본문을 뜻한다.

판정에 따른 등급

Q 본문을 확정하는데 사용된 {A}, {B}, {C}, {D}, 또는 {U} 등의 등급 표시는 각 등급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Barbara Aland를 포함하여 몇몇 학자들이 복원하였던 *Novum Testamentum Graece*(1993)의 27권에 사용된 원칙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A}와 {B} 등급을 받은 본문은 Q 본문으로 채택되는데 있어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필자가 소박하게 시도해 본 것이다. 복원된 원문의 문법적 형식을 그대로 옮기는 일은 삼가고 그 뜻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했다. 복원된 Q 본문과 Nestle-Aland의 NTG에 들어있는 본문과의 차이 비교는 필요하다면 다른 기회에 소개하려고 한다.

으로서, {A}는 가장 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등급이고 {B}는 약간의 논쟁점이 있지만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C}는 위에서 언급된 [[]]와 마찬가지로 Q 본문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많은 의심이 제기되는 본문이지만, Q 본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등급이다. {D}는 확실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Q 본문을 복원하는 데서 제외된 내용을 가리킨다. {U}는 충분한 근거와 자료가 없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내용을 가리킨다.

예수말씀 복음서 Q

?제목?

<·>2)

서언3)

[[Q 3:0]] <<...>>[[<예수의·>]]<<말씀들...>> <요한에게 전이(轉移)>

세례 요한

요한의 출현 (Q 3:2-3)

Q 3:2 하 ...요한...

Q 3:3 ..모든 요단 지역..4)

회개에 대한 설교 (Q 3:7-9⁵⁾)

Q 3:7 그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 [[나오]]<는> [[무리⁶에게]] 말하였다.

2) Q의 제목은 알 수 없다. 고대 사본에 의하면 책의 제목은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해 공통적으로 사용된 자료가 Q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일차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고 있었던 Q 문서는 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예수말씀 복음서 Q>>로 이름이 붙여졌다.

3) 서언은 라틴어 동사 incipit로, 그 뜻은 “시작하다”이고, 어떤 문서에 있어서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떤 문서의 마지막을 알리는 explicit와는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 문헌에 있어서 예수말씀에 대한 기억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말씀 복음서 Q의 서언은 예수말씀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35 하반절, 도마 복음서 1:1; POxy 654.1-5; 클레먼트전서 13:1-2; 46:7-8; 유세비우스의 Historia ecclesiastica 3.39.1, 16; Apocryphon of James 2:7-15; 마니의 Epistula Fundamenti; Thomas the Contender 138:1-2; 바룩서 1:1을 보면, 고대문헌들 안에서 예수말씀에 대한 회상과 기억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예수의 출현 이전에,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의 요단 지역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모든 요단 지역은 광야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흔히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요한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던 곳이다(여호수아 15:61-62; 사사기 1:16).

5) 예수말씀 복음서 Q는 본격적으로 요한의 설교로 시작한다. 요한의 설교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즉 (1) 하나님의 진노(7절), (2) 하나님의 심판(8절), 그리고 (3) 회개의 촉구(9절)이다.

6) 예수말씀 복음서 Q는 메시아를 대망해 왔던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Q에서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올 진노⁷⁾를 피하라 하더냐?

Q 3:8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들⁸⁾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Q 3: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오시는 이에 대한 설교(Q 3:16하-17)

Q 3:16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 내 뒤에 오시는 이⁹⁾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벗겨 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¹⁰⁾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Q 3:17 그는 손에 키를 잡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¹¹⁾”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Q 3:21-22>> << 예수... 요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 아들 ... >>¹²⁾

우리는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다. 이러한 관점은 누가복음에서 우리를 일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묘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누가 1:10, 17, 68, 77; 2:10, 31, 32; 3:10, 15, 18).

7)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적인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이사야 2:11-22; 13:9; 아모스 5:18-20; 스바냐 1:14-15, 18; 2:2).

8) 아브라함의 후손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맹이들과 비교되고 하찮은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모욕감과 분노를 심어 주었겠지만, 갈릴리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9) “오시는 이”(Q 3:16; 7:18; 13:35)는 예수를 가리키며, Q에 있어서 종말론적 인물로 이해되고 지혜 기독교론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Q 7:22-35; 11:31-32).

10) 성령과 불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참고, 이사야 4:4; 말라기 3:3).

11) 예수말씀 복음서 Q는 갈릴리의 농촌을 배경으로 활동하였던 예수와 그 후속 공동체의 전형적인 특징을 뒷받침할 만한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있다(Q 3:9, 16-17; 6:42, 43-44, 47-49; 7:24; 10:2, 7-8; 11:24, 42; 12:6, 24, 27-28, 54-56; 13:19-21; 14:5; 15:4-7; 17:2, 35; 19:20-21).

12) 예수의 세례는 4 복음서들이 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Q 본문은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확실한 복원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아들됨이 기독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주고 있다(Q 4:3, 9; 10:6, 22).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서언

Q 4:1-2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는]] 사십 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 그는 주리셨다.¹³⁾

첫 번째 시험(Q 4:3-4)

Q 4:3 마귀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¹⁴⁾ 이[[]] 돌 [[들]]더러 [[]] 빵[[들]]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Q 4: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기록된 바¹⁵⁾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두 번째 시험(Q 4:9-12)

Q 4:9 [[마귀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¹⁶⁾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 [[]] 뛰어내려 보아라.

Q 4:10 기록된 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Q 4:11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 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13) 예수의 광야 시험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Q에 있어서 성령은 예수의 공생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Q 3:16, 22; 4:1; 11:24; 12:10). 예수의 공생애 동안의 사역이 가르치고(Q 7:22; 14:5), 설교하고(Q 6:20-49), 병을 고치고(Q 7:1-9), 능력을 행하고(Q 10:13), 귀신들을 쫓아내고(Q 11:14, 18-20), 영들을 분별하는(Q 11:24-26) 등의 사역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해된 성령의 사역과 어느 정도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성령론을 바울과 같은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14)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였다(Q 10:22)는 사실은 기독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시험사화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공생애를 전기적 캐스트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공생애의 어려움을 겪었고(Q 4:2-4), 예루살렘에서 수난을 당했고(Q 4:9-12), 마지막으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영광을 얻었다(Q 4:5-8). 그러므로, 예수는 전기적 캐스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고 기독교론적인 칭호를 누린다.

15) 현재 완료형 수동태 단수 3인칭의 형태인데, 이는 Q의 LXX 구약 인용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대답하였는데, 이는 Q의 구약적 배경과 신명기적 사관의 영향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16) 예루살렘은 Q에 있어서 율법과 제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종교적 중심지이다. Q 4:9에 “성전”이란 단어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복원할 수 있었다. 갈릴리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던 Q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된 공동체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 뒤지지 않을 만큼 유대 율법에 대해서 지극히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보수적인 경향성이 Q 공동체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강한 향수를 갖게 하였다.

하였다.”

Q 4:12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세 번째 시험(Q 4:5-8)

Q 4:5-7 [[마귀가]] 그를 데리고 [[매우 높은]] 산¹⁷⁾으로 가서 그에게 세계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이며 그에게 말했다. “[...] 만일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Q 4:8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결언

Q 4:13 그러자 [...] 마귀는 그를 떠났다.¹⁸⁾

추기

Q 4:16 [[...]] [...] [[...나자라...]]¹⁹⁾

예수의 첫 설교

서언(Q 6:20-23)

Q 6:20 그가 눈[[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들고]]서 [[<말씀하셨다 >]]. “가난

17) 산은 Q와 마태복음의 연결점에 대해서 적지 않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마태 4:8의 높은 산은, 산상설교의 장소였으며(마태 5:1), 변모사화의 장소였으며(마태 17:1),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소였기(마태 28:16) 때문이다.

18) 마귀는 시험이후에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과 더불어 떠났다 누가복음은 이같은 사실을 중시하며, 예수의 공생애 동안에 마귀는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마지막 수난주간에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면서 활동을 재개한다고 묘사하기도 한다(누가 4:13; 22:3).

19) 나자라 칭호는 예수에게 붙여진 별명과 같다. 예수의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는 칭호로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사렛 사람”(마태 2:23; 누가 1:26; 2:39, 51)이라고 부른 것과는 달리, Q 공동체는 그들의 스승을 “나자라 예수”라고 부른 것 같다. 그러나, 나자라 예수보다는 인자 예수가 Q 공동체 내에서 예수를 호칭하는 칭호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나자라는 단 한 번 사용되었지만, 인자는 예수 자신에 의해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들²⁰⁾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²¹⁾가 [[너희의 것]]이다.

Q 6:21 주린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Q 6:22 그들이 너희를 욕하고...²²⁾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악하다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Q 6:23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이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기 때문이다.²³⁾”

이웃 사랑(Q 6:27-36)

Q 6:27 “...[[]]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²⁴⁾

Q 6:28 [[그리고]] 너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Q 6:29 너희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대어라. 너희 겹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아라>>.

?QMatt 5:41?/Q 6:29-30 ..

Q 6:30 너희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갚으라고]]... 하지 말아라.

Q 6:31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Q 6:32 .. [[만일]] ..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였다]]면, 너희

20)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과 대조되는 그룹으로서, 예수 당시의 사회계층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부자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가난한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Q 공동체에게 커다란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바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담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21) 하나님의 나라는 Q의 가장 커다란 주제이다. Q 6:20; 7:28; 10:9; 11:2, 20; 12:31; 13:18, 20, 28; 14:16; 16:16; 22:30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현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22)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욕하다”란 단어는 “박해”(Q 11:49)란 단어보다는 고난의 정도에 있어서 약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당하였을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23) 예수는 과거에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을 근거로해서, 앞으로 제자 공동체가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것은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한 동일시으로써, 후에 Q 공동체가 자신들의 운명과 구약 선지자들의 운명을 동일시하여 박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24) 원수 사랑은 예수의 가르침의 가장 독특한 주제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것을 여러 번 가르쳤다(Q 7:1-9, 18-23, 24-28, 31-35; 10:2-16, 21-24; 11:14-23, 24-26; 12:2-12, 22-31, 32-34; 13:18-21, 24-30; 14:5, 16-23, 26-27; 17:33; 14:34-35; 15:4-7; 16:13; 17:1-6, 23-35; 19:12-26).

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까지도 그<<들을>> ...하지 않느냐?

Q 6:33/34 그런데, [[]]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Q 6:35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²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가 그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비추고 비를 ...고 있기 때문이다.

Q 6:36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비판 금지(Q 6:37-42)

Q 6:37-38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²⁶⁾ ...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Q 6:39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Q 6:40 제자가 그 스승 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잘 훈련을 받을 때, 모든 이가]] 그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Q 6:41 왜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Q 6:42 어떻게 네 형제에게, ‘나로 네 눈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아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위선자들이!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 너는 네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하여 밝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 좋은 사람(Q 6:43-45)

Q 6:43 [[]]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도 없다.

Q 6:44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짙레에서 포도를

25)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사랑의 가르침을 토대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성을 기초로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여기서 부성(父性)의 신학이 커다란 지위를 얻게 된다.

26) 비판은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비판할 때에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을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Q 6:45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을 [[가져 오지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²⁷⁾에서 악한 것을 [[가져 온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좋은 나무 좋은 사람(Q 6:46-49)

Q 6:46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²⁸⁾

Q 6:47 나의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Q 6:48 [] 집을 반석 위에 짓는 [[<>]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시내…가 저 집에 밀려왔어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Q 6:49 [[나의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모래 위에 []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시내…가 저 집에 들어[[쳤는데] 그것이 곧바로 무너졌고, 그것의 [[무너짐]이 컸다.”

백부장의 하인(Q 7:1-10)

Q 7:1 … 그가 [[이 말씀들을] 끝마치셨다. 그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²⁹⁾

Q 7:2-4 한 백부장이 그에게 왔다. 그가 간청하여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하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겠다.”

Q 7:6 그 백부장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여, 나는 당신이 나의 지붕 아래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Q 7:7 그러니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하인이 낮게 [[될 것입니다.]]

Q 7:8 나는 권세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27) 이것은 앞에 사용된 단어를 토대로하여 삽입한 것인데, “선한 창고”는 “선한 보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다.

28) 예수의 가르침은 행함을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가장 예수의 가르침을 가깝게 따르고 있다(야고보서 2:14-26).

29) 이 귀절로 짙막하게 예수의 첫 설교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가 공생애 동안에 주로 활동하였던 갈릴리에는 당시에 약 204개 정도의 도시들이 있었다고 한다. 첫 설교 이후에, 활동 무대는 예수의 공생애 사역의 출발지인 가버나움으로 옮겨진다. Q 공동체의 활동 무대 역시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였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1,700명 혹은 그 이하의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Q 공동체의 활동 영역은 페니키아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또한 북으로는 서부 시리아 지역인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나갔다.

에게 가라고 말하면 그는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그는 오고, 나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는 합니다.”

Q 7:9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따라왔던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³⁰⁾

Q 7:10 그리고 [[]] <...>

예수와 세례 요한

요한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 (Q 7:18-23)

Q 7:18-19 .. 요한이... [[]]... ..그의 제자들을 보내<<었다>>.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오시는 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대해야 합니까?”

Q 7:22 그가 [[]]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말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는다.”³¹⁾

Q 7:23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에 대한 예수의 증언(Q 7:24-35)

Q 7:24 그들이 떠난 뒤에 그가 요한에 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Q 7:25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Q 7:26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기 위해서냐?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30) 예수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 선교의 결과로서 Q 공동체가 이방인을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영접해 들였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유대인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유대 율법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유대인 선교를 치중하였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불신을 경고하고 그들을 시기나게 하여 믿음을 일깨우려는 종말론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31) 예수는 구약성서의 인용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지니는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Q 7:27 이것이 그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할 것이다.

Q 7:28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Q 7:31 내가 이 세대³²⁾를 무엇에·· 비길까? 무엇과 같<은가>?

Q 7:32 시장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통하게 울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Q 7:33 요한이 [] 왔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에 들려 있다 하고,

Q 7:34 인자³³⁾가 [] 왔는데,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한다.³⁴⁾

Q 7:35 그러나 지혜는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정당화된다.”³⁵⁾

제자도 (Q 9:57-60)

Q 9:57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Q 9:5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들 곳도 없다.”³⁶⁾

Q 9:59-60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

32) 이 세대는 일차적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을 가르킨다. 그러나, 이 세대는 광범위하게 세상 일반, 즉 이스라엘과 예수의 제자 공동체 모두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르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이 되는 셈이다.

33) 인자는 예수가 자신을 지칭할 때에 붙인 칭호로써 1인칭의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완곡한 어법인데, 비 묵시문학적으로, 비 직함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Q 6:22; 7:34; 9:58; 11:30; 12:10, 40; 17:24, 26, 30).

34) 예수에 대해서 붙여진 혹평인 “술을 즐기는 자”와 “먹기를 탐하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너무나도 적나라한 표현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돌려진 혹평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이들 표현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인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5) Q는 지혜 기독교론을 기초로 예수와 세례 요한을 지혜의 자녀들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지혜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거론되고 있다. 지혜를 예수로 이해하게 될 때, 지혜의 자녀들은 그의 말씀들로 이해될 수 있다.

36) 예수의 공생애 동안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귀절이다. 인자 예수의 공생애는 마땅히 머리를 들곳도 없이 순례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졌다.

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그들 자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그 죽은 자들을 떠나라.”

선교 파송(Q 10:2-11)

Q 10:2 <… [[그가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Q 10:3 [[가거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Q 10:4 [[돈이나 주머니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³⁷⁾

Q 10:5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든지, [[‘평화!’라고 말하여라]]

Q 10:6 평화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위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Q 10:7-8]] [[그들이 <<차려 놓은 것을>>]] …<<먹어라>>]]. 일꾼이 그의 삯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 …]]

Q 10:9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³⁸⁾

Q 10:10 [[그러나 너희가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 고을로부터]] 나올 때,

Q 10:11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회개하지 않은 세 고을들(Q 10:12-16)

Q 10: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 소돔이 저 고을보다 잘 견딜 것이다.

Q 10:13 너에게 화(禍)가 있을 것이다.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

37) 복음 전도자들은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견유학파들(the Cynics)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예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이 불필요한 준비에 시간이나 정력을 낭비하지 말 것을 강도 높게 가르쳤다.

38)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과거완료 형태가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적인 종말론을 실현된 종말론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세다야!³⁹⁾ 너희에게 행해진 능력들이 두로와 시돈⁴⁰⁾에서 행해졌더라면, 그들이 벌써 [[]]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Q 10:14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에 너희보다 잘 견디게 될 것이다.

Q 10:15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셈이냐? 너는 [[그]] 음부까지 떨어질 것이다.

Q 10:16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한다.”

예수의 감사 기도와 축복

감사 기도(Q 10:21-22)

Q 10:21 <<어느 때>>에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여!⁴¹⁾ 당신은 이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셨고 그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⁴²⁾ 그러한 것이 당신의 자비로운 뜻입니다.

Q 10:22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Q 10:23-24)

Q 10:23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39) 예수에 의해서 책망받은 갈릴리의 세 고을들, 즉 고라신과 벳세다(Q 10:130 그리고 가버나움(Q 10:15)은 이방 지역에 있었던 세 고을들, 즉 소돔(Q 10:12)과 두로 그리고 시돈(Q 10:13)에 비교되고 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려는(Q 10:16) 수사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0)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로서, Q 공동체의 활동의 영역이 이들 지역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41) 예수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로 부르고 있는 것은 구약성서의 창조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문서 전통에 널리 퍼져 있는 호다요트 형식문(the Hodayot formula)과 일치하는 표현이며, 신약성서에도 마태 11:25; 누가 10:21; 행 7:24에 나타나 있다.

42)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Q 10:21-22; 11:2, 13; 12:30)은 예수의 발언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것이며 독특한 용법이다.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인 전통과 맞물려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부성의 신학(the theology of the fatherhood)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Q 10:2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⁴³⁾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의 기도문 (Q 11:2-4)

Q 11:2 <...> “기도하여라. 아버지!⁴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Q 11:3 우리의 하루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Q 11:4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여 주시고,⁴⁵⁾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권면 (Q 11:9-13)

Q 11: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Q 11:10 구하는 모든 자가 받고, 찾는 자가 발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다.

Q 11:11-12 ..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⁴⁶⁾ 아들이 떡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

43) 예수의 가르침은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 위에 서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위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44) 아버지란 호칭에 덧붙여진 수식어, 이를테면 “하늘에 계신...”은 Q 본문의 복원에 있어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그 수식어는 마태복음에서 “하늘 나라”의 상용적 표현과 맞물려서, 마태의 편집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45)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빛 혹은 빛진자는 죄 혹은 죄 지은자와 비교되는데, Q의 복원이 마태공동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불가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는 인간 삶의 고달픈 문제들 중의 하나를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Q가 구체적인 인간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46) 이런 종류의 수사적 어법은 Q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서(Q 12:25; 14:5; 15:4), 예수의 육성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준다. 이 어법은 구약성서의 예언자적인 말씀들을 소개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다(사 42:23; 50:10; 학 2:3[LXX 2:4]; 말 1:10).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여러 차례 나타난다(마태 6:27; 7:9-10; 12:11; 24:45-46; 누가 11:5-7, 11-12; 12:25, 42-43; 14:5, 28, 31; 15:4, 8; 17:7-9). 특히 이 수사학적 표현은 의문문을 이끄는데, 그 대답을 “예, 그렇습니다!”로 유도하고 있는 전형적인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다.

겠느냐?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Q 11:13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알세불 논쟁(Q 11:14-23)

Q 11:14 그가 병어리 귀신[[을]] 쫓아 [[<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났을 때, 그 병어리가 말을 하였다. 그래서 무리들이 놀랐다.⁴⁷⁾

Q 11:15 그러나 어떤 사람이 [[]] 말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두목의 힘을 빌어 그가 귀신들을 쫓아낸다.”

[[Q 11:16]]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 [[하늘로 부테]] 표적을 [[]] 찾고 있었다.]]

Q 11:17 그러나 그가 그들의 생각하는 것들을 알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나누어진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갈라진]] 집[[이 서지 못할 것이다]].

Q 11:18 그리고 사단이 스스로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Q 11:19 그런데 내가 바알세불로 귀신들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Q 11:20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⁴⁸⁾으로 내가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⁴⁹⁾

<<Q 11:21>> <<완전히 무장된 강한 사람이 그 자신의 궁을 지킬 때, 그의 소유물들이 안전하다.>>

47) 기적에 대한 증언은 Q에 있어서 아주 드물다(Q 7:1-10; 11:14). 그렇지만, 기적이 Q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주 크다. 백부장 이야기에서 기적을 매개로 백부장의 믿음이 높이 평가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여기서는 병어리 귀신이 쫓겨난 이야기가 바알세불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Q 11:20).

48)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표현이다. 구약성서의 전통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겔 3:14; 8:1-3; 37:1; 시 8:3; 33:6; 왕상 18:12; 왕하 2:16; 대상 28:12, 19; 사 8:11).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도 같은 표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모두 히브리적 개념의 호환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49)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귀(exorcism)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들이 쫓겨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Q 11:22>>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 그를 정복할 때, 그가 믿었던 무장을 빼앗아서 그의 재물을 나눈다.>>

Q 11:23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진다.”

깨끗하지 않은 영과 깨끗한 영 (Q 11:24-26)

Q 11:24 “깨끗하지 않은 영⁵⁰⁾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가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지나 가다가, 찾지를 못한다. [[그 때에]] 그가 내가 나왔던 나의 집으로 되돌아 가겠다.’ 하고 말한다.

Q 11:25 그런데 그가 와서 그것이 청소되고 정돈된 것을 보았다.

Q 11:26 그 때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영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들어가 거기에 거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Q 11:27? ..

?Q 11:28? ..

요나의 표적 (Q 11:29-32)

Q 11:29 [[그가 말씀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이외에 아무 표적도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

Q 11: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재[[도]] 이 세대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Q 11:31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⁵¹⁾가 여기에 있다.

Q 11: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에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50) 예수는 귀신들이 깨끗하지 않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고(Q 11:20-26), 그들은 악한 영이라고 하였다(Q 11:26). 악한 영이 활동하는 목적은, 시험하기 위한 것이며(Q 4:2), 사람의 형편을 더 악화시키려는 것에 있었다(Q 11:26). 그러므로 그들은 강한 자요(Q 11:21), 반대하는 자요(Q 11:23), 넘어뜨리는 자(Q 11:26)로 나타난다.

51)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다름 아닌 예수를 가리킨다. 32절의 요나보다 더 큰 이도 예수를 가리킨다.

빛과 어두움 (Q 11:33-36)

Q 11:33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Q 11:34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온 몸[[이]] 밝다. 그러나,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너의 온 몸이 어둡다 [III].

Q 11: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크지 않겠느냐
 [[Q 11:36]] [[<<전체적으로 빛나는 몸의 밝음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⁵²⁾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Q 11:39상 -52)

Q 11:39상 그가 [[말씀하셨대]] [III].

Q 11:42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禍)가 있을 것이다.⁵³⁾ 너희가 박하와 [[회향]]
 과 [[근채]]의 십일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너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행했어야 한다.⁵⁴⁾

Q 11:39하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곁은 깨끗하게 하지만,⁵⁵⁾ 그 속은 탐욕과 무절제(無節制)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Q 11:40 ... 그 곁을 만드신 분이 그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Q 11:41 <...>

52) 빛과 어두움에 대한 가르침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즉, 빛은 하나님의 세계를, 어두움은 귀신들의 세계를 상징한다.

53) 화(禍) 즉 저주에 관한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해지고 있는 것이 Q 의 특징이다
 여기서 우리는 Q 공동체와 바리새파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비록 Q 공동체가 예루
 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 살게되었지만 바리새파 못지않게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통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유전과 전통에 대해서 예수의 가르침에 비
 추어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

54) 실제로 십일조를 드린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랍비들의 문
 헌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미쉬나 m. Ma'as 1:1; 4:5; 미쉬나 Ma'aserot 4:5; 미쉬나 Demai
 2:1). 구약성서에서도 곡식이나 기름, 열매, 동물 등을 십일조로 드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신
 14:22-23; 민 18:12; 레 27:30).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일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
 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 뜻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본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55) 잔의 외부만을 깨끗이 하는 것 역시 바리새적 전통이라는 것이 랍비들의 문헌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토쉐프타 Berakoth 5:26; 8:2-3; 미쉬나 Kelim 25:1). 그러나 구약적인 전통에 의하
 면 그릇들을 닦기 위하여 물 속에 담가두고 저녁때까지 그대로 두었던 것을 볼 수 있다(레
 11:32-33).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릇의 외부만 닦았다는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전통임에 틀림
 이 없다. 왜냐하면 그릇의 외부는 내부를 닦을 때 자연스럽게 닦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Q 11:43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Q 11:44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⁵⁶⁾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Q 11:46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도]] 너희 자신[[들은]] 너희의 손가락[[이]]도 그것들에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Q 11:47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비석들을⁵⁷⁾ 세우지만, 너희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Q 11:48 [[이와 같이 너희가]] 증인[[들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그...<<소행들에 동조하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죽였고]] 너는 [[비석을 세우기]]⁵⁸⁾ 때문이다.

Q 11:49 그러므로 또한 .. 지혜 ..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 보내겠다. 그들이 그들 중에서 <<몇 명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⁵⁹⁾

Q 11:50 [[그 결과]] 창세(創世)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Q 11: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집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이다.⁶⁰⁾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을]] 이[[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Q 11:52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 [[를]] [[가로챘기]] 때문인데, [[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두려움에 대한 권면

56) 구약(舊譯)성경에 “평토장한 무덤” 혹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걸만 그럴 듯 하게 꾸며놓고 위선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이다.

57) 이것을 기념비나 혹은 묘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58) 47절에서 비석들을 세운다는 동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Q 본문을 번역하면서 삽입하였다. 즉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그 후손들은 비석을 세우는 아이러니를 반복해서 범하였다는 신랄한 비판이다.

59) 여기서 “박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예언자들의 박해 혹은 순교를 Q 공동체가 당하는 박해 혹은 순교에 동일시하려는 Q 편집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60) 순교의 피는 아벨로부터 사가라까지 배척의 결과이다. 이러한 배척은 예수와 Q 공동체에 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예수는 순교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대가 불신했고 배척했기 때문이며 결국 그 피의 댓가를 이 세대에게 묻겠다고 말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Q 12:2-7)

Q 12:2 “감춰진 것이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Q 12:3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전해지고 너희 귀에 듣게 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된다.

Q 12:4 육신을 죽[[이]]고 능히 생명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⁶¹⁾

Q 12:5 지옥... <<에 던지는>> 이를 ... 두려워하여라.

Q 12:6 [[다섯 <<마리>>]] 참새가 두 앳사리온⁶²⁾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동의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Q 12:7 ... 그리고 너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⁶³⁾

성령 모독죄 (Q 12:8-10)

Q 12:8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도 ... 앞에서 그를 시인할

Q 12: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가 ... 앞에서 부인...⁶⁴⁾

61)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Q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육체에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62)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단위이다. “앳사리온”은 로마 시대의 구리 돈을 의미하는데, 데나리온의 1/6에 해당하는 보잘것 없는 가치의 돈이었다.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1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다섯 마리 참새가 두 앳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볼 때 당시 노동자는 하루에 참새 15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다. 당시에 참새 15마리는 비둘기 2마리의 값이었다. 이것을 빵으로 환산하면, 1 데나리온으로 작은 빵 6덩이를 살 수 있었는데, 빵 한덩어리가 1 앳사리온에 맞먹는 것이었다. 이것을 마가 12:41-43과 비교하여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의 동전을 통해서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 당시에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은 랩톤이었다. 랩톤은 갈릴리 지역 도처에서 발견이 되었다. 동전이 갈릴리의 농촌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당시 농민들이 가까운 도시를 왕래하며 상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당시의 랩톤은 알렉산더 안네우스의 동전인 프루타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다. 그러므로 앳사리온은 작은 것들 중의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하찮은 미물, 그것도 보잘것 없는 작은 돈에 팔려나가는 신세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한다고 말함으로써, Q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63) Q의 하나님은 미물인 참새까지도 돌보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말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곤궁에 처한 Q 공동체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64) Q 12:8-9에서 “인자”를 복원하는데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Q의 복원에 있어서 제외하였다.

Q 12:10 그런데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⁶⁵⁾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Q 12:11-12)

[[Q 12:11]] “[그들이 너희를 회당⁶⁶⁾ <<앞에>> [[끌고 갈]] 때, 너희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Q 12:12]] “· 왜냐하면, · [[그… 때에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그가]] 너 [[회]]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까마귀를 보고 백합을 생각하라(Q 12:22-31)

Q 12:22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너희는 무엇을 먹을 까 몸을 · 위하여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Q 12:23 목숨이 음식보다 또한 몸이 의복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Q 12:24 까마귀[[를 보아라]]. 그것들은 심지어 거두지도 또한 <<창고에>> 모 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 으냐?⁶⁷⁾

Q 12:25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의 키를 ·자나 더할 수 있 느냐?

Q 12:26 그런데 왜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Q 12:27 어떻게 그것들이 자라는지,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 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 도 이들 중의 하나만큼 차려 입지는 못하였다.

Q 12: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 와 같이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65) 머리를 둘 곳도 없이 다니던 인자 예수의 공생애(Q 9:58)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그려 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인자 예수를 거스리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며 또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66) 회당은 스테반의 박해 이후에 흩어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의 장소였던 것이 분명하 다. 회당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67) 예수와 Q 공동체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의 한 복판에서 미물인 까마귀를 돌보며 백합화 를 입히기까지 사랑의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은 “... 더 귀하지 아니하냐?”는 수 사적 질문으로 반어적인 결론을 이끌어 가고 있다(Q 12:23,24). 그리고 계속되는 귀질들에서 유사 한 형태의 수사적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Q 12:25, 26, 28, 29).

야!

Q 12:29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Q 12:30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⁶⁸⁾ [[]]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Q 12:31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⁶⁹⁾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Q 12:32-34)

[[QMatt 6:19]]/Q 12:32↔33⁷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화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에서는 썩이 먹고 녹이 슬고 또한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파고 훔쳐간다.]]>>

Q 12:33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 ..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썩[[도 먹지 않고 녹도 슬지 않고 또한 거기에서는]] 도둑...이 [[파지...않고 훔쳐가지...도 않는다]].

Q 12:34 [[너의]]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Q 12:39-46)

Q 12:39 “[[저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어느 시각에 그 도둑이 오는지 알았다면, 그가 그의 ... 집...을 파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Q 12:40 또한 너희는 준비하여야 한다. 인자는 너희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⁷¹⁾에 오기 때문이다.

Q 12:42 그 때에, 그 주인이 그의 식구를 맡기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

68) 일반적으로 Q에서 이방인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해지고 있다. 이방인들이 찾고 있는 것들(Q 12:29)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제자에게도 필요한 것들인 줄로 다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신앙의 우선 순위를 먼저 찾을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69)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삶의 우선 순위를 일깨워 주는 말씀이다.

70) 이 귀절을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원형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Q의 복원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유는 Q 공동체가 후에 마태 공동체로 병합되었기 때문이다.

71) Q의 종말론은 마지막 때에 대한 임박한 기대감에서 출발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재림의 지연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지연된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을 가르치게 된다.

음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인가?

Q 12:43 그의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Q 12:4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Q 12: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 속으로 나의 주인이 지연되었다⁷²⁾고 말하면서 [[]], 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기]] 시작한다면,

Q 12:46 그 종의 주인이 그가 기대하지 않은 날에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그를 조각으로 나눌 것이며⁷³⁾ 그리고 그의 기업을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내가 검을 주려고 왔다 (Q 12:49, 51, 53)

?Q 12:49? ..

Q 12:51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Q 12:53 내가 [[아들<을>]] [[]] 아버지와, [[]] 그리고 딸을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를 그의 시어머니와 불화하도록 하려고 왔기 때문이다.”⁷⁴⁾

때를 분별하라(Q 12:54-56)

[[Q 12:54-55]] “[[[저녁이 되었을 때,]] 너희는 말한다. [[날씨가 좋다. 이는 하늘이 붉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침에 <<말한다.>> 오늘은 구름이 낄 것이다. 이는 하늘이 불그스레하기 때문이다.]]

[[Q 12:56]] [[]] 하늘의 [[]] 모양을 [[분간]]할 줄 [[알]]면서, 너희는 그 때⁷⁵⁾를 [[]] [[분간하지]] 못하느냐?”

72) 지연이란 단어는 Q에서 이 귀절이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후에 이 단어는 재림지연을 초래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종말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73) 조각으로 나누는 것은 근동지방의 계약체결 의식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양쪽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오가면서 계약을 성사시켰다 (창 15:17-18).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상징적으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를 경고하였다.

74) 이 귀절들은 아주 역설적이다. 예수의 가르침이 지니는 가치 전도적인 기준을 가르치려고 한다.

75)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때는, 연대기적인 시간의 크로노스(χρόνος)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키는 카이로스(καιρός)를 뜻하고 있다.

화해하라(Q 12:58-59)

Q 12:58 “네가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길 가는 중에라도 그로부터 놓임받기 위하여 노력하라 [III]. [[그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그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그리고 ··· <<그 간수가>>… 너를 감옥에 처넣지 않도록 하여라.

Q 12:59 [III]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동전⁷⁶⁾을 지불하기… 까지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겨자씨의 비유(Q 13:18-19)

Q 13:18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⁷⁷⁾는 무엇과 같고 또한 내가 무엇에다가 비교할 수 있을까?

Q 13:19 그것은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었던 것과 같다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누룩의 비유 (Q 13:20-21)

Q 13:20 “그리고 그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교할 수 있을까?

Q 13:21 그것은 어떤 여인이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덩이가 부풀 때까지 그 속에 감추었던 것과 같다.”⁷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Q 13:23-30)

Q 13:23-24 “그 좁은 [[문]]을 지나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III] 들어 [[가려고 찾았지만]] 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Q 13:25 그 [[집 주인이]] [[그]] 문[[을]] 잠갔을 [[때]], [[너희는 ··· 두드리기 시작한다]] ···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너희에

76) 여기서 동전은 당시의 화폐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인 렘톤에 비교할 수 있다. 작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예를들면 “지극히 작은자,”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티” 혹은 “겨자씨” 등이 Q의 특징으로 기억될만하다.

77)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 Q 6:20; 7:28; 10:9; 11:2, 20; 12:31; 13:18, 20, 28; 14:16; 16:16; 22:30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다섯 가지의 관점들, 즉 소유의 관점,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 존재적 특성, 혹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78)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Q에서 쌍동이 비유로 항상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비유가 한 쌍을 이루는 것은 예수의 비유의 전승에 있어서 원래부터 쌍동이 형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참고, 누가 13:18-19, 20-21; 15:4-7, 8-10).

게, '내가 너희를 []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한다.

Q 13:26 [[그 때에 너희가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Q 13:27 그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 . . 나에게서 떠나라, 악<<을 일삼는 자들아!>>

Q 13:29, 28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것이지만,⁷⁹⁾ [[너<희>는]] 밖에 내 쫓기게 <<될 것이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Q 13:30]] [[. . . . 마지막 사람들이 . . . 처음이 될 것이며, 처음 사람들이 . . . 마지막이 될 것이다.]]⁸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Q 13:34-35)

Q 13: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느냐? 암탉이 그 날개 아래로 제 [[새끼들을]] [[모으는 것 같이]] 얼마나 자주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기를 원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81)

Q 13:35 보아라, 너희의 집이 버려진다. .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때가 오

79)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상의 식탁 교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원의 상징성을 지니는 중요한 표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였는가 하는 Q의 관점이다. 그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사의 도식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80)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서 흔히 접하는 결론적 격언이라 할 수 있는데, 마가 10:31과 Q 13:30이 서로 “처음”과 “마지막”을 뒤바꾸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원형에 가까운지 분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마가 이전의 전승과 Q 전승이 구전 전승 단계에서 예수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승들(Q 7:27=마가 1:2; Q 3:16=마가 1:7; Q 11:15b=마가 3:22c; Q 11:21-22= 마가 3:27; Q 11:33b=마가 4:21b; Q 6:38b=마가 4:24cd; Q 12:31b=마가 4:24e; Q 19:26c=마가 4:25c; Q 13:19d=마가 4:32d; Q 13:30=마가 10:31; Q 14:27a=마가 8:34b; Q 17:33bc=마가 8:35bc; Q 10:16bc=마가 9:37bc; Q 17:2b=마가 9:42b; Q 14:34=마가 9:50a; Q 16:18=마가 10:11, 12c; Q 11:43c=마가 12:39a; Q 16:17b=마가 13:31a)을 검토해보면, 마가복음이 Q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Q와 겹치는 이상의 마가 귀절들은 마가 이전 전승으로부터 마가복음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서, 구전 전승 단계에서 마가 이전의 전승들과 Q 전승이 서로 같은 전승을 예수에게서 받아서 공유하였던 자료들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81) Q 안에서 유대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유대 전쟁이 예루살렘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이 귀절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귀절이 예언자들에 대한 박해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 전쟁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신명기적 사관의 영향 속에서 이 귀절을 이해해야 한다. 예언자들을 배척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의 불신을 단죄할 수 있는 이유는, 배척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Q 13:35).

기]]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시다!”

안식일 논쟁

[[Q 14:5]]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중에 누가 [[]] 소<를>⁸²⁾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끌어내지>> 았[[졌느냐?]]”⁸³⁾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리라

Q 14:11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 겸손한 자는 높아질 것이다.”⁸⁴⁾

큰 잔치의 비유 ([[Q 14:16-23]])

[[Q 14:16]]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를 베푼 한 사람<<과 같다.>>

[[Q 14:17]] 그런데 그가 그의 종을 ·· 초청된 자들에게 보내어서, ‘오십시오, 잔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Q 14:18]] <<그들이 모두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 <<말하기를, 나는>> ... 밭을 <<샀다>> ...

[[Q 14:19]] ... <<말하기를, 나는 ... 샀다>> ...

82) 누가 14:5의 “그 아들이나 소” 마태 12:11의 “양” 중에서 어느 것이 원래 예수의 육성인지 학자들의 열띤 논쟁이 있었다. 구약성서적 전통에 따르면, 누가복음의 “아들”은 Q 본문의 복원에 있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구약성서가 모두 짐승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 21:33; 22:4; 23:4; 신 22:4; 사 32:20). 그러나 짐승들 가운데 마태복음의 “양”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의 편집권이기에 때문에 제외될 수 밖에 없다(참고, 양에 대한 언급: 마태복음이 11회, 마가복음이 2회, 누가복음이 2회).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소”가 가장 역사적 예수의 말씀에 가깝다고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다.

83) 안식일 논쟁이 과거의 신약학계에서 역사적 예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긴 역사가 있었지만, 현재 Q 본문의 복원은 안식일 논쟁을 예수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입각하여 유대율법의 틀을 깨뜨리고 율법의 본 뜻을 드러내려는 예수의 정신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기원을 예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귀절로도 그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84) 예수의 가치 척도의 기준이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지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예수는 갈릴리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초의 신앙공동체를 갈릴리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Q 14:20]] … <<말하기를, 나는 결혼했다>> …⁸⁵⁾

[[Q 14:21]]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들을 그의 주인에게 보고하였다. 그 때에 그 집 주인이 [] 노하여서 그의 종에게 말했다. [[빨리]] [[거리]]로 나가서 [[만일 너희가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곳에>>⁸⁶⁾ 데려 오너라.

[[Q 14:23]] 그러자 거리로 나간 후에 그<> 종<>이 [[그가 발견한 모든 사람들을 모았고]] [], [[그 집이 채워졌다]]. <..>⁸⁷⁾

제자의 길(Q 14:26-27; 17:33)

Q 14:26 “[[누구든지]] 그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Q 14:27 자기 []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⁸⁸⁾

Q 17:33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람은 []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소금의 비유(Q 14:34-35)

Q 14:34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맛이 없으면 무엇으로

85) 불행스럽게도 Q의 본문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손님들의 이유를 복원할 수 없었다

86) 그곳은 잔치 자리를 가리킨다(참고 Q 14:16).

87) 이 비유는 종종 예수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입증하는 귀절로 인용되기도 하지만, 비유에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만 볼 수 없다. 또한 복음에 대한 배척을 유대인의 배척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 다음에 길거리의 사람들을 묘사한 것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라고 알레고리화하여 비유를 해석하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이 귀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큰 잔치에 초대된 손님의 배척으로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척을 뛰어 넘어서 집 주인이 새로운 사람들로 잔치 자리를 채우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거절과 한계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자들의 수가 충만해 진다고 하는 생명력과 활동성을 일깨우는 비유로 보아야 한다.

88) Q 문서가 오직 이 귀절에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을 뿐, 어느 곳에서도 수난이나 부활 설화를 간직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혜전통에 근거하여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출발점 때문이다. 이미 Q 공동체는 예수의 목격자 그룹, 즉 예수의 수난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50년 이전에 전승의 여러 갈래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던 수난과 부활 전승을 중복하여 수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Q 공동체가 예수의 말씀에 대한 목격자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예수말씀을 수집해야 할 시급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된 예수의 말씀들이 갈릴리를 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Q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차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 <<짜게>> 될 것인가? 89)

Q 14:35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그들이 그것을 내버린다.”

잃은 양의 비유 (Q 15:4-7)

Q 15:4 “너희 가운데서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개]]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아흔아홉을 <<그들이 있는 곳에>> 90) 남기고 그 [[잃어버린 것을]] 그가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Q 15:7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와 같이 하늘에서 ... 그가 [[그]] 아흔아홉보다 [그것을] 더 기뻐한다.”

두 주인

Q 16:13 “아무도 [[]]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 쪽을 미워하거나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또는 그가 한 쪽을 섬기거나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mammon을 함께 섬길 수 없다.” 91)

율법에 대하여 (Q 16:16-17)

Q 16:16 “율법과 [[]] 예언자들은 ... 92) 요한까지이다. [[그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었고,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

Q 16: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 지는 것이 더 쉽다.” 93)

89) 소금에 대해서 “좋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이 마가 9:50의 전승을 받아 들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마가 이전 전승의 단계에서 Q 전승과의 공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기에, IQP는 C 등급(C)으로 복원을 해 주었다. 소금에 대해서 “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소금이 지니는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90)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흔 아홉을 길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둘 수는 없다. “그들이 있는 곳”은 적어도 아흔 아홉을 더이상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란 의미가 있으며, 또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흔 아홉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찾아 나서는 일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시급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91) 하나님과 mammon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사이의 대조를 넘어서, 신령한 것과 신령하지 않은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를 구분짓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92) 마태 11:13의 “예언하였다”와 누가 16:16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등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각각 Q의 전승을 확대 혹은 재해석하고 있지만, Q의 복원에 있어서 어느 것이 원래의 형태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서 Q 전승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93) Q 공동체가 얼마나 유대 율법에 대해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절이다.

간음에 대하여

Q 16:18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자마다 [[]] 간음하는 것인데, 이혼한 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⁹⁴⁾

넘어지게 하는 일 (Q 17:1-2)

Q 17:1 “<·> 걸려 넘어지는 일들⁹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오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Q 17:2 그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⁹⁶⁾보다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매고 [[]] 바다에 빠지는 것이 [[]] 그에게 더 낫다.”

용서에 대하여 (Q 17:3-4)

Q 17:3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만일 [[그가 너의 <<말을 >> 듣거든 그를 용서하여 주어라]].⁹⁷⁾

Q 17:4 그런데 만일 하루에 일곱 번 그가 너에게 죄를 지어도, 역시 일곱 번 그를 용서하여 주어라.”

믿음에 대하여

Q 17:6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⁹⁸⁾

94) 예수가 유대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던 새로운 모세였다. 신 24:1-4에서 모세 율법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혼할 것을 허락하고 있지만, 예수는 이혼은 간음을 조장하고 재혼도 간음으로 이어진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아예 이혼과 재혼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의 모세 율법이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이혼법을 재고하면서 여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해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5) 이것을 “실족케 하는 일들”로 번역할 수 있다.

96) 이것을 “걸려넘어지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

97)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경고와 죄를 뉘우치는 자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측면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되어야 할 신앙인의 아름다운 덕목이다. 왜냐하면, 흔히 죄를 경고하면서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반대로 죄를 경고하여 그를 깨우치지도 못하면서 용서를 먼저하여 의를 그릇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98)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가장 작은 믿음을 가르킬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던 표상이다. 겨자씨의 비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표상하기도 하였다.

인자의 날(Q 17:20-35)

?Q 17:20? ..

?Q 17:21? ..

Q 17:23 “...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그는 광야에 있다]].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보아라! [[그는 방 안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가지 말아라.

Q 17:24 번개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날>]]⁹⁹⁾이 그와 같을 것이다.

Q 17:37 주검이 있는 곳에,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Q 17:26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Q 17: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갔는데]],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Q 17: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Q 17:3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Q 17:35 두 여인이 멧돌을 갈게 될 것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¹⁰⁰⁾

달란트의 비유(Q 19:12-27)

Q 19:12 “...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이

Q 19:13 그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¹⁰¹⁾를>> 주었다.

Q 19:15 저 종들의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고 그들과 더불어 셈을 하였다.

Q 19:16 [[그러자]] <...> [[]] 그 [[첫 번째 <<종>>이]] <<왔고,>> 말하기를, 주

99)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인자의 날은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의 틀 속에서 이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역사와의 단절 속에서 역사를 초월하는 종말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아의 날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심판이었던 것을 중시하여, 인자의 날도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 이 귀절이 마태 24:41에서 마태복음의 묵시문학적인 틀 속에 자리를 잡게 되지만, 원래 Q 본문에서는 묵시문학적인 틀 속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다. Q에서 이 귀절은 종말론적인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는 취해지고 하나는 버려지게 된다는 선택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101) 원래 예수가 달란트를 가지고 비유를 말하였는지 아니면 므나를 가지고 말했는지는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Q의 복원에 있어서 이 귀절의 “달란트” 대신에 “므나”를 삽입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현금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는 사실을 예수의 비유는 말하고 있다.

인님! ... [[당신의 <<달란트가>> 열 배로 늘었습니다.]]' 하였다.

Q 19:17 그가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신실한 [] 좋아! ...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들을 네게 맡기겠다.'

Q 19:18 그리고 그 [[두 번째 <<종>>이]] 왔고,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였다.>>

Q 19:19 그가 그에게 말했다 []. 너에게[[도]] 내가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

Q 19:20-21 그런데 [[다른 <<종이>>]] 왔고, 말하기를, '주인님! [[나는]] 당신이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또한 키질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엄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였고], [[나는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 [[땅]] 속에 [[숨겼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하였다.

Q 19:22 그가 그에게 말했다. '악한 좋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았던 곳에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았던 곳에서 모으는 줄로 [] 알았느냐?

Q 19:23 [[그러면 왜 너는]] 나의 돈을 은행¹⁰²⁾[[에 두지 않았느냐]]? 내가 돌아온 후에 나는 이자와 함께 [[내 자신의 것을]] 받았을 것이다.

Q 19:24 그에게서 그...<<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Q 19:26 · 가진 자마다 더 주어질 것이지만 가지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Q 19:27? <<...>>

마지막 상(Q 22:28, 30)

Q 22:28 "· 나[[를 따랐던]] · 너희들은

Q 22:30 그 [[나라]]에서 <·> []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¹⁰³⁾

102)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원래 돈을 바꾸는 자들의 책상을 뜻한다. 그들은 수수료 혹은 이자를 받고서 돈을 바꾸어 주었다.

103) 이 귀절 역시 묵시문학적 표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의 표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마지막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보좌에 앉아 그의 스승 예수와 더불어 심판을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이다.